지위경쟁사회 속 십자가 지위

(시편 69:1~36)

1.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3.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4.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5.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지위경쟁사회 속 십자가 지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지위경쟁사회 속 십자가 지위'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은 풍요로운 사회가 지옥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사회를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한국이 헬조선으로 불리게 된 이유를 지위경쟁에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위경쟁'이란 본래 사회학적인 용어로서 사회적 지위획득의 수단으로 학력을 추구하는 사회현상을 말합니다. 학력이 높으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됨으로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높은 학력을 추구하는 것이 지위경쟁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SKY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수는 1만 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53% 부총리 및 장관의 71% 병원장의 53% 종합병원 의료인의 42% 법조인의 65% 고시합격자의 54% 대학교수 40% CEO 53%가 SKY 대학 출신입니다. 반면에 하위권 대학을 나와서는 취직도 힘들다는 것이 사회의 통념입니다. 그렇기에 허리가 휘도록 사교육비를 지출합니다. 엄마가 마트의 캐셔나 식당의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들은 고가의 학원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그렇습니다. 20~30대의 노동자 남성중에서 높은 학력일수록 결혼률도 높아집니다. 임금이 하위 10%인 기혼자는 6.9%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위 10%의 기혼자는 82%나

됩니다. 이렇게 학력이 좋으면 지위가 높고, 지위가 높으면 돈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어야 사회 전반에 걸쳐 역할과 특권이 커지고, 심지어는 결혼의 기회조차도 차등이 생기는 것이 지위경쟁사회입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경쟁사회가 되어버린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형편없습니다. UN이 조사한 삶의 만족도에서 58위,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는 80위나 118위까지도 나타납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은 결국 지위경쟁사회에 빠져버린 우리 사회를 자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는 사실을 나의 지위와 신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나 깨나 사업가이고 골프를 쳐도 사업가이고 마트에 가도 사업가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지위이자 신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부모이고 직장에서는 부장이고 친구들 앞에서는 친구라는 여러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는 신분을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신분과 지위로서 인정하며 사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라는 지위와 신분을 고집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열망하는 이유는 특권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법을 제정하는 권리가 있고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지위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장이든 부장이든 지위에 걸맞은 역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지위에도 특권과 역할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의 권리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지위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죽은 자의 지위에서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서만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신분을 나의 지위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천 년 전에 지위경쟁에 휘말려 있는 순간에 왕의 지위를 등지고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의 지위를 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천 년 뒤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기적 같은 내용의 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편 22편처럼 신약성경에서 많이 인용되는 시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자면 대적들의 박해를 받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위경쟁을 하는 중에 받는 고통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나 아도니야의 모반 사건으로 추측됩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이었고, 아도니야 모반 사건은 압살롬의 이복형제였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야가 아버지 다윗이 늙어서 왕위를 계승하고자 할 때에 허락 없이 스스로 왕을 자처했던 사건입니다. 두 사건에서 다윗은 치열한 지위경쟁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할 때에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과 연관 지어 인용되는 세 구절이 있음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구절은 36절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띄엄띄엄 나타나지만 시 전체의 내용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본문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여 왕의 지위를 등지고 십자가에 달린 자의 지위를 택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먼저 4절을 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5절에서 오늘 본문을 축약하여 인용하시며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를 쓰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지위를 나의 지위로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지위를 얻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높은 지위도 있고 부모나 자녀 같은 당연한 지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 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지위는 예수님의 지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지위와 동일시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요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1~4절까지는 다윗은 대적들에 의해서 당하는 곤경에 대해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일변하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점이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홍수가 난 가운데 물에 빠진 것으로 비유합니다. 급류에 떠내려가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물이 배를 가득 채우고 목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둘러싸서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고 상실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허파에 물이 차오른 것처럼 위기의 상황은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위기 앞에 압도되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억울함과 분노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윗도 이렇게 환경적 상황이 마음에 가득 찼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한 마음 상태를 우매한 것이고 죄악으로 규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물을 삼키듯이 마음으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대처해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위와 동일시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과 다른 위치에 계셨던 것처럼 되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우매하고 죄악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점이 세상과 신앙인의 다른 점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로 마음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마음이 삶에 닥친 위기로 인해 세상의 환경으로 채워졌으니 그것을 우매한 것과 죄악으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두 번째 요점은 9절에서 나타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는 말씀대로 성전 정화를 마치신 주님을 통해 제자들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떠올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를 비방하는’이라는 말은 선민이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라고 하는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성전에 대한 열성을 가졌던 것일까요? 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열성에 다윗은 자신을 일치시켰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열성을 앞당겨 체험했던 것입니다.
앞서 홍수에 빠져서 물을 삼키듯이 마음으로 환경을 받아들인 상태가 우매함과 죄악이며, 이것을 죄악으로 느끼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문제를 담고 고민하게 된 이 죄악 된 상황을 바로 성전의 번제단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양과 함께 죽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열성적으로 사모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위를 나의 지위로 받아들이기 위한 두 번째 요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마치신 후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1~22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을 사모함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죄는 곧 하나님으로 가득 찰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버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번제단에서 어린양과 함께 죽어야만 하는데, 그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본문 21절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바라보면서 자신과 예수님을 일치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함으로서 하나님으로 가득차야 할 마음에 세상 문제를 가득 채운 내가 죽음으로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 마음으로서 태어날 것을 알았기에 성전을 사모했던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천 년 전에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왕위 계승의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중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넷째 아들 아도니야가 왕을 자처하며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지위경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우선적으로 삶의 상황으로 차버린 마음이 우매한 것이고 죄악된 것임을 깨닫고 성전을 기억합니다. 마음이 성전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 하는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양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또한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하면서 세 번에 걸쳐 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실 일을 성령을 통해 인지하였던 것입니다.
왕의 지위에 있던 다윗은 지위경쟁이 벌어진 치열한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지위와 동일시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좌에 앉은 장본인이었지만 그 지위를 등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지위를 일평생 사모하는 다윗은 시편 21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진 지위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지위를 한 등급 높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자리가 나의 지위이자 신분임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서 마음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는 이미 만족한 내가 아니라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지위가 나의 지위이자 신분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